

- 주요 뉴스 미국, 양호한 9월 고용지표로 연준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이 크게 하락
 - EU,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% 관세 부과를 결정. 협상 가능성은 지속
 - 국제 유가,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상승세 지속
 - 영란은행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, 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함을 요구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로 연착륙 기대 강화

주가 상승[+0.90%], 달러화 상승[+0.49%], 금리 상승[+1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며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도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빅컷 기대가 약화되며 강세
유로화는 0.52% 하락, 엔화는 1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bp 상승하며 약 2개월래 최고 수준 도달
독일 및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7bp, 11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44.3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46.8원, 0.19% 하락), 한국 CDS 약보합

		10/4일	10/3일	전일대비			10/4일	10/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751.1	5,699.9	0.9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7%	3.85%	12bp
	유럽	518.56	516.29	0.44%		독일	2.21%	2.14%	7bp
	중국	휴장	휴장	-		영국	4.13%	4.02%	11bp
	일본	38,636	38,552	0.22%	CDS 5y	한국	31.6	31.7	0bp
	한국	2,569.7	휴장	0.31%		중국	61.5	62.1	-1bp
환율	달러지수	102.5	102.0	0.49%	위험 지표	EMBI+	-	389.0	-
	유로화	1.0974	1.1031	-0.52%		VIX	19.2	20.5	-6.25%
	엔화	148.7	146.93	-1.20%		WTI유	74.4	73.7	0.91%
	위안화	휴장	휴장	-	원자재	구리	457.4	455.3	0.46%
	원화	1,349.30	휴장	-1.99%		금	2653.6	2655.9	-0.0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양호한 9월 고용지표로 연준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이 크게 하락

- 미국은 9월 비농업고용이 25.4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(+14만명)을 크게 상회. 이는 6개월래 최대 규모이며 지난 12개월 평균값(+20.3만명)보다도 높은 수치. 아울러 7월(8.9만명 → 14.4만명) 및 8월 지표(14.2만명 → 15.9만명)도 수정
- 9월 실업률은 4.1%로 2개월 연속 하락(7월 4.3% → 8월 4.2%)했으며,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4% 증가하며 5월 이후 최고 수준
-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경제 성장을 뚜렷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락한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라는 평가
- 양호한 고용지표로 연준의 11월 빅컷 기대가 크게 후퇴. 트레이더들은 향후 4번의 회의 동안 25bp씩 총 10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, 최종 금리 전망은 기존의 3.0%~3.25%에서 3.25%~3.75% 수준으로 상향 조정
- 일각에서는 9월의 50bp 인하가 불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대두.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뒤늦은 판단이지만 연준의 9월 빅컷이 '실수'였다고 평가. 한 외환시장 전문가도 연준이 7월 및 8월 고용지표 수정치를 미리 알았다면 금리를 25bp 인하했을 것이라고 지적
- 월가 전문가인 Ed Yardeni는 주가 강세장,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하면 9월 50bp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면서, 올해 금리 인하가 끝났을 가능성 제기. 국제 유가 반등,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정책완화는 물가 위험을 재차 확대시킬 소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,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% 관세 부과를 결정. 협상 가능성 지속

-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%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. 프랑스,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으며 독일,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,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한 가운데 기권표를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

-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는 가운데, EU는 협상 가능성을 제시. 최저판매 가격 설정, 수출물량 조절 등이 가능한 타협안
- 헝가리 총리는 EU의 관세 부과로 양국간 '경제 냉전'이 발발할 것을 우려. 프랑스 등 주요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진 국가들이 많은 것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시사

■ 국제 유가,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상승세 지속

-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전쟁 위험 등을 반영해 4일 연속 상승. 브렌트유는 전주 대비 10% 이상, WTI는 9% 이상 상승하며 2년 전 OPEC+가 감산을 시작한 이래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
-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가능성이 유가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, JPMorgan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공격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원유 재고가 적기 때문에 중동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부연

■ 영란은행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, 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함을 요구

- 필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베일리 총재의 적극적 금리인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. 경제 및 물가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겠지만, 금리를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큰 폭으로 인하할 위험을 경계해야한다는 입장
-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베일리 총재가 9명의 정책위원 중 과반수 의견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

■ ECB 주요 인사들, 10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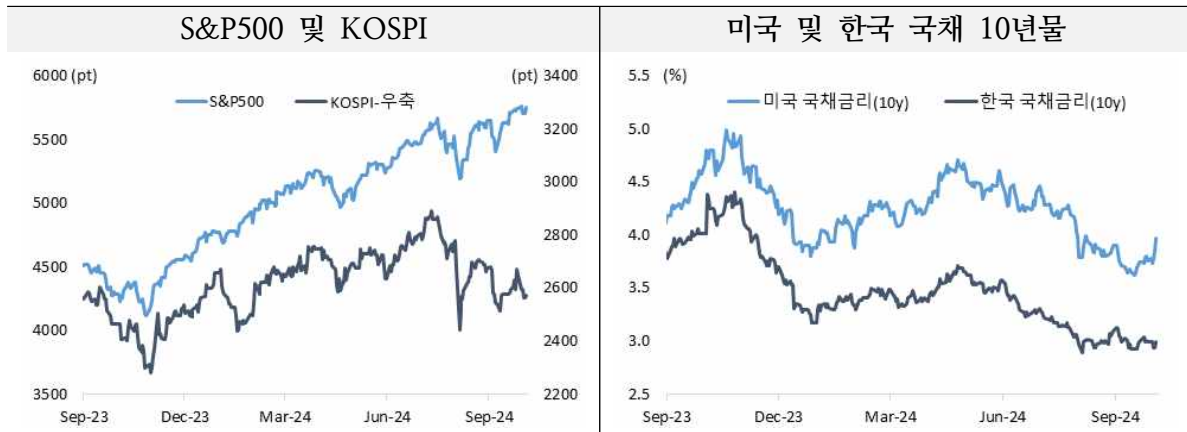
- 센테노 위원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ECB의 2% 물가 목표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. 반면 권도스 부총재는 9월 양호한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지적
- 권도스 부총재는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다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우려. 시장 및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및 경기 약화로 인해 10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FOMC 의사록, 독일 8월 무역수지(10/9일), 미국 9월 물가상승률(10/1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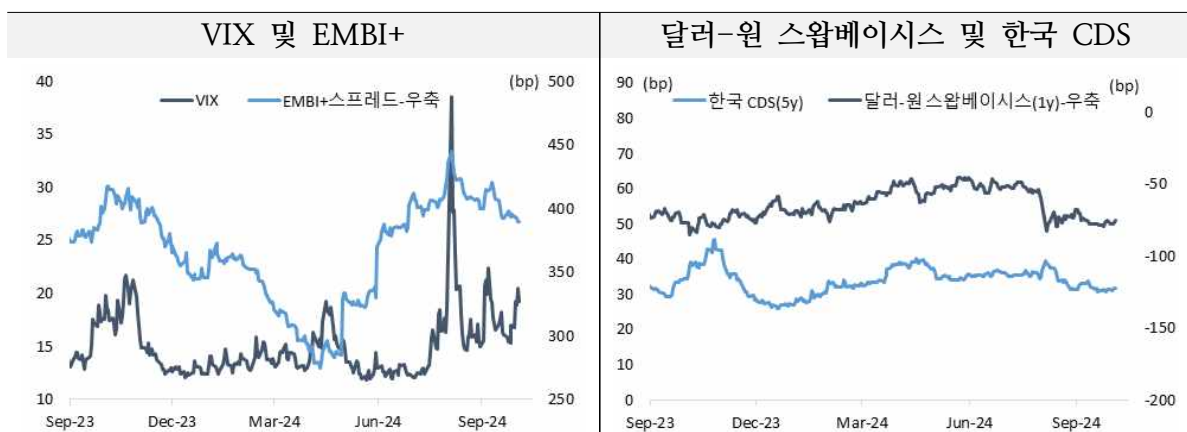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6, E-mail wjhwang@kcif.or.kr